

‘눈부신 활약’ 스타는?...켈리·박병호·이정후

KBO전반기

12승 올린 켈리 20승 페이스
6번째 홈런왕 노리는 박병호
이정후, 타격 전부분 상위권



LG 케이스 켈리



KT 박병호



키움 이정후

2022시즌에도 최고의 선수들이 프로야구 그라운드를 빛내고 있다. KBO리그는 오는 14일 5경기를 끝으로 전반기가 마친다. 오는 15, 16일 올스타전을 치른 후 22일부터 후반기 레이스를 시작한다. SSG 랜더스(55승 3무 26패)가 시즌 초반부터 1위를 질주하고 있는 가운데 2위 키움 히어로즈(54승 1무 30패), 3위 LG 트윈스(51승 1무 30패)가 호시탐탐 1위 탈환을 노리고 있다. SSG는 리그 최강 원투펀치 김광현과 윌버 폰트를 앞세워 순항하고 있다. 에이스 김광현은 9승 1패 평균자책점 1.65를 기록해 평균자책점 부문 1위를 달리고 있다. 김광현은 KBO리그 유일의 1점대 평균자책점 선수다. 과거와 같은 강속구는 없지만, 노련한 경기 운영과 주무기 슬라이더를 앞세워 에이스의 진가를 재확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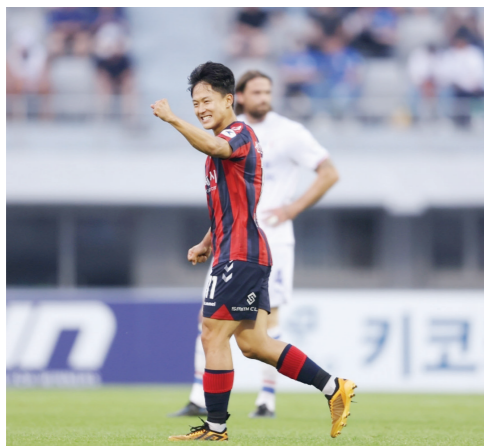
LG 에이스 케이스 켈리는 전반기에만 12승을 올려 다승왕을 노리고 있다. LG 외국인 선수 사상 첫 다승왕에 다가가고 있다. 켈리는 최근 8경기 연속 승리투수가 되는 등 최근 11경기에서 9승 무패 평균자책점 1.53를 기록했다. 시즌 12승 1패 평균자책점 2.28의 성적으로 LG를 상위권에 올려놨다. 켈리는 승률(0.923) 부문에서도 1위를 달리고 있다. 켈리와 철벽 불펜진이 이끄는 LG 마운드는 팀 평균자책점(3.17) 1위를 달리고 있다. 폰트와 안우진(키움 히어로즈), 소형준(KT 위즈)은 나란히 10승을 수확했다. 폰트는 10승 4패 평균자책점 2.02를 기록해 다승 공동 2위, 평균자책점 2위에 올라 2관왕을 겨냥한다. 또한 폰트는 피안타율

(0.175) 1위, 이닝당출루허용률(0.75) 부문에서도 1위에 올라 가장 위력적인 투수 중 한 명으로 손꼽히고 있다. 시즌 10승 4패 평균자책점 2.02를 기록한 안우진은 KBO리그에서 최고의 구위를 보여주고 있는 선수 중 한명이다. 안우진표 시속 160km의 강속구와 150km에 육박하는 슬라이더가 크게 주목받고 있다. NC 다이노스 드류 루친스키는 안우진과 함께 탈삼진(125개) 부문 공동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소형준은 10승 2패 평균자책점 2.55로 생애 최고의 시즌을 눈앞에 뒀다. 소형준은 KT 구단 역대 최다승(2020년 오드리사머 데스파이너 15승) 경신을 바라보고 있다. LG 마무리 고우석은 뛰어난 구위를 앞세

워 1승 1패 27세이브에 평균자책점 1.80을 기록해 생애 첫 구원왕을 노리고 있다. 정해영(KIA 타이거즈)은 22세이브를 수확해 고우석을 추격하고 있다. 키움의 불펜 에이스 김재웅은 23홀드(2승 평균자책점 0.91)를 올려 홀드왕 타이틀을 노리고 있다. 올해 홀드를 기록한 투수 중 0점대 평균자책점은 김재웅이 유일하다. 김재웅은 LG 불펜의 핵 정우영(21홀드)과 타이틀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 삼성 라이온즈의 호세 피렐라(타율 0.342)와 이대호(롯데 자이언츠·타율 0.339)와 이정후(키움·타율 0.337)는 타격왕 경쟁에 나섰다. 피렐라는 6월 한 달간 타율 0.216으로 슬럼프를 겪었다. 하지만 최근 7경기에서 0.433의 고타율을 기록해 다시 타율 1위로

올라섰다. 피렐라는 최다안타(106안타), 출루율(0.420), OPS(0.991) 부문에서도 1위에 올랐다. 올해를 끝으로 은퇴하는 이대호는 여전한 기량을 보여주고 있으며, 타격 전부분에서 상위권에 있는 이정후는 KBO리그 최고의 테크니션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다. KT 박병호는 독보적인 홈런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올해 27개의 홈런을 터뜨려 18홈런을 날린 김현수(LG)를 멀찌감치 따돌렸다. 45홈런 이상의 페이스를 보여주는 박병호는 통산 6번째 홈런왕에 도전한다. 박병호는 ‘에이징 커브’라는 평가를 비슷듯 뜨거운 홈런포를 터뜨려 하위권에 있던 KT를 4위로 끌어올리는데 큰 공헌을 했다. 박병호는 69타점을 올려 이 부문 2위에 올랐으며, 장타율(0.589) 부문 1위에 있다. SSG 한동희는 72타점을 기록해 리그 1위에 서있다. 한우섭은 생애 첫 타점왕을 노린다. 올해 정확한 타격과 빠른 발을 자랑하고 있는 최지훈(SSG)은 60득점으로 이 부문 1위에 이름을 올렸다. 19도루로 이 부문 공동 2위에 자리했다. KBO리그의 대표적인 ‘준주’ 키움 김혜성(29도루 59득점)은 도루 1위, 득점 2위에 랭크됐다. 김혜성은 2년 연속 도루왕에 가까워지고 있다. 김혜성은 2년 연속 3할에도 도전한다.

프로축구 수원FC 이승우, 6월 가장 역동적인 골 선정



지난달 21일 포항 스틸러스전 후반 17분 발리슛 득점 성공

프로축구 K리그1 수원FC의 이승우가 6월 가장 역동적인 골을 기록한 주인공이 됐다. 프로축구 K리그1(1부) 수원FC의 이승우가 6월 가장 역동적인 골을 기록한 주인공이 됐다. 프로축구연맹은 가장 역동적인 골을 넣은 선수에게 수여하는 ‘G MOMENT AWARD(게토레이 승리의 순간)’의 6월 수상자로 이승우가 선정됐다고 12일 전했다. 이승우는 지난달 21일 포항 스틸러스와의

17라운드에서 후반 17분 코너킥 세트피스에서 공중볼을 그대로 오른발 발리슛으로 연결해 득점에 성공했다. 이상은 2명의 후보를 정해 100% 팬 투표로 진행되는 이 이승우가 경쟁자 바코(울산)를 압도했다. 팬 투표 결과, 이승우가 총 1만921표(69%)를 받아 4802표(31%)의 바코를 따돌렸다. 이승우는 상금 100만원과 트로피를 받게 된다. 뉴스스



미리보는 코리안시리즈? 1위 SSG vs 2위 키움 ‘3연전’

1위 SSG와 2위 키움 불과 2.5경기차

전반기 마지막 3연전에서 빅매치가 벌어진다. 시즌 내내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는 SSG 랜더스와 맹렬한 추격전을 펼치고 있는 키움 히어로즈가 올스타 휴식기를 앞두고 대격돌한다. SSG와 키움은 12~14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3연전을 벌인다. 전반기 마지막 3연전이다. KBO리그는 15일부터 올스타 휴식기에 들어간다. 55승 3무 26패인 SSG와 54승 1무 30패인 키움의 격차는 불과 2.5경기다. 이번 3연전 결과에 따라 선두 경쟁의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 두 팀 모두 이번 3연전을 마치고 일주일 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어 전력을 아낌없이 쏟아부을 가능성이 높다. 키움의 경우 토종 에이스 안우진, 한현희, 최원태 등 이번 3연전에 등판하지 않는 선발 투수를 1군 엔트리에서 제외하고, 그 자리에 불펜 투수와 야수를 채웠다. SSG도 12일 경기를 앞두고 엔트리에 변화를 줄 예정이다. 양 팀 모두 최근 상승세다. SSG는 삼성 라이온즈와의 주말 3연전을 모두 승리로 장식하며 4연승을 달렸다. 키움도 NC 다이노스와의 홈 3연전을 모두 이겼다. SSG는 최근 10경기에서 9승 1패를 거뒀다. 키움도 최근 10경기 8승 2패로 선전했지만, SSG가 덩달아 상승세를 타는 바람에 따라잡지 못했다. 3연전의 첫날인 12일에는 SSG의 베테랑 우완 노경은과 키움의 외국인 에이스 에릭 요키시가 선발 맞대결을 한다. 선발 로테이션상 SSG는 13일과 14일 각각 윌버 폰트, 김광현이 선발로 출격할 전망이다. 키움은 타이틀 에플러, 정찬현으로 맞선다. 폰트와 김광현은 리그 최고의 원투펀치로 꼽힌다. 리그 평균자책점 부문에서 김광현이 1.65로 1위, 폰트가 2.02로 2위를 달리고 있다. 다승 부문에서도 폰트가 10승(4패)으로 공동 2위, 김광현이 9승(1패)으로 공동 5위다. 김광현과 폰트 모두 올해 키움을 상대로 강한 면모를 자랑했다.

김광현은 올해 키움전에 두 차례 선발 등판해 모두 승리를 따냈다. 평균자책점은 0.75에 불과했다. 폰트도 두 차례 등판에서 2승 무패 평균자책점 0.64로 잘 던졌다. 키움의 14일 선발로 예정돼 있는 정찬현은 시즌 성적을 놓고 봤을 때 5승 3패 평균자책점 4.40으로 김광현에 밀린다. 하지만 정찬현 역시 올해 SSG를 상대로 좋은 기억을 갖고 있다. 두 차례 등판에서 모두 승리 투수가 됐고, 12이닝을 던지면서 단 2실점(평균자책점 1.50)했다. 다만 에플러는 올 시즌 유일한 SSG전 등판이었던 4월 21일 경기에서 5이닝 8피안타(1홈런) 4실점으로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불펜은 키움이 더 안정적인 모습이다. 키움은 올 시즌 불펜 평균자책점 3.14로 1위다. SSG는 4.57로 8위에 머물러 있다. 올 시즌 23홀드로 홀드 1위를 달리고 있는 셋업맨 김재웅이 든든하고, 마무리 투수 문성현이 뒷문을 잘 걸어잡고 있다. SSG는 불펜이 흔들리는 모습을 종종 노출했다. 하지만 우완 투수 문성원이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토미존 서저리) 재활을 마치고 지난 10일 합류해 불펜진이 강화됐다. SSG는 지난주 치른 6경기에서 팀 타율 0.281을 기록했다. 또 홈런을 11개나 쏘아올렸다. 집중력이 좋다. 9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전에서 4-1로 앞서가다 2회 6점을 내주고 역전을 허용했지만, 8회 5점, 연장 10회 3점을 올려 13-10으로 이겼다. 반면 키움은 지난주 6경기에서 팀 타율이 0.254로 좋지 못했다. 지난주 6경기에서 타율 0.500(24타수 12안타)을 기록한 김혜성을 비롯해 이용규, 이지영 등이 분전했으나 간판 타자인 이정후가 주춤하면서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올 시즌 상대전적에서는 SSG가 4승 2패로 앞서 있다. ‘미리보는 한국시리즈’라고 봐도 무방한 이번 3연전에서 누가 웃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뉴스스

최고 인기구단 SSG·LG 50만 관중 돌파...700만명 도전

SSG, 41경기서 관중 53만8392명(평균 1만 3132명) 기록...LG, 42경기서 관중 52만1648명 동원

KBO리그가 코로나19 악재 속에서도 700만 관중을 향해 가고 있다. KBO리그는 12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3연전을 끝으로 전반기가 마감된다. 15, 16일 올스타전을 치른 후 22일부터 후반기 레이스에 돌입한다. 시즌 초반 코로나19 여파로 육성 응원을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많은 관중들이 야구장을 찾았다. 2020년(시즌 관중 32만8317명), 2021년(시즌 관중 122만8489명)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관중 상승세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7월10일 기준 총 341만7440명의 관중이 야구장을 방문했다. 경기당 평균 관중은 약 8315명이다. 후반기에 본격적인 순위 싸움이 시작되면 더 많은 관중이 야구장을 찾을 수도 있다. 600만 관중을 넘어 700만 관중도 가능해진다. KBO리그는 2017년 840만명 관중을 유지해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2018년 관중이 807만 명으로 줄더니, 2019년에는 728만명에 그쳤다. KBO는 올 시즌을 도약의 해로 삼고 있다. 전반기 시작과 동시에 홈런 1위를 달리고 있는 SSG 랜더스는 10개 구단 중 가장 많은 관중을 동원했다. SSG는 41경기에서 53만8392명(평균 1만 3132명)의 관중을 기록해 최고 인기 구단으로 등극했다. 정규리그 3위를 달리고 있는 LG 트윈스는 42경기에서 52만1648명(평균 1만2420명)의 관중을 기록했다. 뒤를 이어 두산 베어스(41경기 40만6888명), 삼성 라이온즈(43경기 36만7568명), 롯데 자이언츠(41경기 35만4503명), KIA 타이거즈(40경기 35만3787명), KT 위즈(42경기 31만5301명)가 뒤를 잇고 있다.



인구 구단인 두산과 삼성, 롯데, KIA는 성적 반등만 있다면 더 많은 관중을 동원할 수도 있다. 리그 최하위 한화 이글스(39경기 20만8235명)는 관중 동원에서 8위를 기록했고, 키움 히어로즈(44경기 18만8070명) 9위, NC 다이노스(38

경기 16만3068명)가 최하위에 이름을 올렸다. 평균 관중 수에서는 키움이 4274명으로 NC(4291명)에 밀려 최하위다. 하지만 키움은 올해 리그 2위를 달리면서 관중이 증가하는 추세다.

송가은, 여자골프 세계랭킹 80위 도약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시즌 첫 승을 신고한 송가은(MG새마을금고)이 세계랭킹에서도 재미를 톡톡히 봤다. 송가은은 12일(한국시간) 발표된 새 세계랭킹에서 랭킹 포인트 1.44로 80위에 올랐다. 지난주보다 32계단이나 순위가 상승하면서 100위 이내로 재진입했다. 송가은은 10일 끝난 대보 하우스다 오픈에서 최종합계 18언더파 198타로 오지현(대방건설)을 밀어내고 정상에 올랐다. 뉴스스

난해 10월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 이후 9개월 만에 맞은 통산 2승째다. 상위권은 큰 변화가 없었다. 고진영이 랭킹 포인트 9.48로 전체 1위를 유지한 가운데 이민지(호주)와 넬리 코다(미국)가 2-3위를 지켰다. 아타야 티티콜(태국)이 리디아 고(뉴질랜드)를 5위로 끌어내리고 4위에 등극한 것이 톱10의 유일한 변화다. 뉴스스